

**SL701**

**한국산 곤충의 모식표본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박 규 택  
강원대학교 자원생물환경학부

**가. 현황**

한국산 곤충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것은 제주도에서 채집, Tatum(1847)에 의해 신종으로 기재 발표(1847)된 제주홍단딱정벌레가 처음이며, 그후 1880년대 초부터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양인들(Butler, Fixen, Leech등)에 의한 한반도 곤충의 채집 및 보고가 잇따르게 되었다. 그 당시 이들 서양인들에 의해 신종으로 발표되었던 한반도 곤충은 무려 50여종 이상이나 되나 그중 많은 종들은 synonym으로 처리되었으며, 1900년 이후 해방 전까지는 주로 일본인 곤충학자나 서구인들에 의해 많은 한국산 곤충들이 신종으로 발표되었었다. 특히 스웨덴인 Bryk(1947-49)은 한반도에서 30종, 162아종의 나방류를 신종으로 발표한바 있다(모식표본은 스웨덴 박물관 소장). 이들 종들의 모식표본들은 모두 그들 국가의 자연사박물관등에 보관되어 있으나 분류군별로 정확한 종수나 어느 기관에 보관되어있는지 등 이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인으로 한국산 곤충을 신종으로 보고한 것은 1930년대 趙(1905-1971)와 石(1908-1950)등이나 이들이 발표한 종들중 유효학명으로 남아있는 종은 거의 없다. 해방후 국내인으로는 처음으로 김(1955)에 의해 산수유좀나방(*Carposina coreana*)이 신종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이의 모식표본도 분실되고, 발표물이 국제동물명명규약에 맞지 않아 학명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조와 박(1990)에 의해 Neotype으로 재지정되면서 그 유효성을 살린바 있다. 또한 고(1968)에 의해 발표되었던 솔잎혹파리떡잠벌(*Insotemma seoulis*)등 2

종의 모식표본 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산 곤충종의 모식표본들은 몇몇 외국의 저명기관에 소장되어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보관처에 대한 정보가 종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국내 소장자료들은 1970년대 이후 최근의 분류학자들에 의하여 기재, 발표된 것이 전부이다. 분류군이 크고 관련된 연구자들이 많아 아직 정확한 현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 동안 발표자가 집계한 국내 곤충의 모식표본의 보존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들의 보존은 대부분 개인 연구자들의 보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산 곤충으로 기재 발표된 종수는 현재까지 342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헝거리 자연사박물관등 동구권 국가들이 보관하고 있다.

**나. 관리방안**

- 1) 국내 동물 모식표본(type specimen)의 보존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이들 보존현황을 자료화하여 발간물로 편찬한다.
- 2) 개인 소장은 분실과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국립기관(농업과학원, 국립수목원등)에 우선 보관토록 이전 조치를 취한다(자연사박물관이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 3) 대상 표본소장기관을 국가 동물모식표본 관리기관으로 지정토록 건의하고, 대상기관은 개인 소장자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SL702**

**한국산 어류의 모식표본 보존현황**

김 익 수  
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

한국의 어류는 936종으로 최근 보고되었는데(한국동물분류학회, 1997), 그 가운데 동종이명이 아닌 종으로 한국에서 기재 발표된 어류는 63종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어류가 과학적으로 처음 기재된 것은 1892년 러시아의 Herzenstein에 의한 잉어과 돌고기 *Pungtungia herzi*이고 그 모식표본은 러시아 Petersburg에 있는 학술원 동물학연구소(ZISP 9681)에 있다. 그 후 러시아의 Berg(1906, 1907, 1931)에 의하여 몰개, 묵납자루, 어름치, 칠성말배꼽이 기재되어 모식표본은 역시 ZISP에 있다. Regan(1908)은 가시납지리, 참마자, 통가리의 3종을 청주에서 채집 발표하고 대영박물관(BMNH)보존하고, Jordan 등(1913, 1925)이 기재한 13종의 모식표본은 현재 시카고자연사박물관(FMNH)에 있는데 그 가운데 서호납줄갱이는 국내에서는 이미 절멸된 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Mori는 1923년 이후 국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신종을 발표하였으나 그 가운데 동종이명으로 밝혀진 것들을 제외하면 18종(각시붕어, 줄납자루, 감돌고기, 쉬리, 배가사리, 돌마자, 모래주사, 돌상어, 꾸구리, 흰수마자, 새코미꾸리, 수수미꾸리, 미유기, 꼬치동자개, 자가사리, 사루기, 자치, 한독중개)이 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가 신종으로 기재한 모식표본은 모두 보존기관이 기록되지 않고 또 그 표본의 소재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Banarescu and Nalbant(1973)는 미국 스미소니안 미국자연사박물관(USNM)에 보존된 2종을 기재하였다. 김익수는 1975년 이후 발표 기재한 참중개, 왕중개, 미호중개, 부안중개, 칼납자루, 임실납자루, 황해볼락, 좀수수치, 동방중개, 큰줄납자루, 땡경모치, 얼룩새코미꾸리 12종을 전북대(CNUC)에 보관하고, 전상린은 1980년 이후 기재한 가는돌고기, 점물개, 동사리, 얼룩동사리, 참돛양태 4종을 상명대(SMWU)에 보관하고 있다. 손영목(1987)은 통사리를 서원대(BCUE), 이용주(1992, 1995)는 망둑어과 2종을 전북대(CNUC), 이충렬

(1990, 1997)은 눈동자개와 등근물뱀을 군산대(BKNU)에, Nalbant(1997)는 남방중개를 루마니아 학술원 생물학연구소(ISBB)에, 정충훈(1997)은 고려홍어를 인하대(FSIU)에, 채병수(1999)는 여울마자를 경북대(BEKU)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기재발표된 어류 63종가운데 완모식 혹은 총모식 표본 19종은 외국 7개 박물관 및 연구소에 보존되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어류 24종의 모식표본이 6개 대학 연구실에 분산되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관리상 문제가 있는데다 아직까지 소재가 불명한 20종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SL703**

**해양무척추동물(절지동물 제외)의 모식표본 보존 현황**

**심 정 자**  
한남대학교

절지동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해양무척추동물 분류에 관한 연구는 1936년 일본인 Sato에 의한 “남조선 해산동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교육 연구”에 발표된 것과 1941년 Kamita 와 Sato가 “인천만의 해산 동물상”이란 제목으로 “조선 박물학회지”에 발표된 여러 해산 동물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는 후 그 이후 60년 초까지 연구가 중단되다가, 1966년 노에 의해 “한국산 원색동물의 연구”에서 13종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1신종을 포함하여 78종이 발표되었고, 1968년 김, 노, 심에 의하여 해면동물 17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1신종을 포함하여 223종이 보고되었다. 1970년 이후 자포동물, 태형동물, 환형동물, 완보동물, 극피동물 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현재 자포동물 4신종을 포함하여 210여종, 태형동물은 5신종, 130여종, 해산 환형동물은